

제 六 장 날 곱 인

첫 재 인 (사도시대 — 기원三一 — 一〇〇년)

「내가 보매 어린양이 날곱인중에 하나를 제시는지라 그때에 내가 드르니 네 령 볼중에 하나이 우뢰소리 가리 말하야 가르대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잇는 지라 한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밧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날곱교회의 묵시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신채부터 그가 재림하실때까지의 날곱시대동안에 잇을 그리스도교회의 령사를 표시한것이다. 예수께서 이 예언을 당신의 교회에 주신것은 다름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되 여셔한 형편가운 대서든지 저이의 필요한것을 수용할실수 잇는본으로 알고 의지하라 하심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귀동안에 이기는자는 상을 어들것이라고 장려하시었다.

그런데 이 인봉한 날곱책의 묵시도 역시 그 동일한 시귀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경험을 표시한것이다. 이 예언의 목적은 곧 령리하고도 괴멸하는 세력을 가지고 교회안에 드러운 「배도하는자」의 악한본성을 드러내려함이다. 곧 날곱교회의 예언으로는 승리의 표준을 가리쳐 주시고 날곱인의 예언으로는 마쌍이 피해야할 악파 위협을 가리쳐 주었다. 날곱교회의 예언은 교회에 대한 예수의 사업을 표시하였고 날곱인의 예언은 교

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사업을 표시한것이다. 우리는 이 날곱인을 연구할때에 그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할것이다.

『요한』은 큰 날립를 가지고 어린양이 그 인을 제시고 그 책을 퍼사 거귀 잇는 내 용을 자기에게 보이기를 기다리고 주룩하고 잇었다. 그때에 네 령볼중에 하나이 우뢰 가른소리로 『요한』에게 말하기를 「오라」 하였다. 『요한』이 가서 본즉 흰말이 잇는데 한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바다 쓰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었다.

그 첫째인은 첫째교회와 가른 동일한시대들 가리쳤는데 그 말의 흰비춘 적당하게도 초대교회의 순결함을 표상하였다. 사도시대에 잇는 초대교회가 핏박을 밧나 크게 환난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당시 교회는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잇는 신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미들이 온세상에 전하야 들림이로다」 하였고 또한 그가 三十年간이나 전도를 한후에 말하기를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된바라」 하였다. 그럼으로 하나님의교회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령전련송하야 나아가자다. 비록 고난과 핏박이 잇엇을지라도 그 모든것을 능히 이기고 이기었다.

둘 재 인 (배도의시작 — 기원一〇〇 — 三二三년)

「둘재인을 제실때에 내가 드르니 둘재 령볼이 가르대 오라 하는지라 또 다른말이 나오니 붉은말이라 그 한자에게 권세를 주어 서에서 화평한것을 제하야 사랍들로 서로 죽이게 하고 저에게 큰 칼을 주엇더라」

그 다음에는 어린양이 들재인을 제시는데 들재령들이 『오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오라」 하였다. 그 때에는 『오한』뿐 아니라 보좌합해 잇는 령들들까지도 김혼 흥미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보려고 주목하고 잇었다. 이번에는 한 붉은말이 보이는데 그 탄자에 게 큰 칼을 주었다. 그리고 「그 탄자에게 권세를 주어 씨에 화평한것을 제하여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였다」

첫재인과 들재인의 가지아니한점은 위선 그 말의 비치다. 순결한교회를 표상한 흰말을 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것을 이기었거니와 불순결한교회를 표상한 붉은말을 탄자는 육신의 키구인 칼을 가지었다. 첫째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화평이 잇었지만 들재인 시대에는 말한자가 손에 칼을 가졌으며 씨에 화평을 제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한바 「불법의 키미」는 이미 사도시대에 씨나기 시작하였든바 이시대에 이르러 그 씨지 매우 자라났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명칭하신바 「사단의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사단』의 방식은 칼로 죽이고 「씨에서 화평을 제하여」바리는것이다. 과연 『사단』은 제2제3세기동안에 잔학한 핍박으로써 교회를 대적하였다. 그러나 순도자의피는 씨에 심은 종자와 가락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였다.

『사단』의 같은 비록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세상에 화평을 제하거니와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길인 그의 말들은 사람의 령혼을 질러 소성케 하고 세상에 화평과 회락이 충만케 한다.

셋 재 인 (백도한교회—기원三三—五三八년)

「셋재인을 세실때에 내가 드르니 셋재령들이 가르대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김은 말이 잇는지라 탄자가 손에 저울을 잡았더라 내가 드르니 네 령들가운데 음성가 른것이 잇어 가르대 한량에 밀한되를 얻고 한량에 보리성되를 어드리니 기름과 포도즙은 다치지 말라 하더라」

어린양이 셋재인을 세실때에는 셋재 령들이 소리질러 가르대 「오라」 하였다. 보니 김은말이 잇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잡았다. 『오한』이 드르매 네 령들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가르대 「한량에 밀한되를 얻고 한량에 보리성되를 어드리니 기름과 포도즙은 다치지 말라」 하였다.

첫재인에 나오는 흰말은 교회에 대한 『사단』의 세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것을 표시함으로 들재인에 나오는 붉은말은 『사단』의 악한 세력이 나타나 흉악한일할것을 표시함으로 셋재인에 나오는 검은말은 흰말의 순결한것과는 정반대가 될것을 표시함이니 과연 셋재인시대인 『비가모』교회시대에는 법왕정치가 완전히 성립되었고 성경은 거의 그 립자도 업서지게 되었다. 종교가 심히 암흑한가운데 타락되고 도덕상 부패도 극도에 달하였다. 교회가 정부와 결탁하여 명예와 재물과 영화누리기를 힘썼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것은 사람의 행실과 심지(心志)를 저울질한다는 「죄악의사람」법왕을 표상함이다. 이 표상은 또한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킨 한 세력을 표상할수

도 있는데 『로마』 황제 『칸스탄틴』은 나라정치만 행할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건에도 간섭을 행하였다.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는 일은 『칸스탄틴』후로 『췌스티니안』 황제에 이르러 기껏지 려대의 황제가 다 그와 같은 정책을 채용하여 왔다.

六 「한량에 밀린되를 잊고 한량에 보리 식되를 어드리라」한 것은 당시의 신도들이 세속적리욕에 열마나 열중하였던 것을 표상함이니 이 시대 동안에 다수한 불신자들이 한갓 류행을 썩락 교회에 입교한 후에는 세속리의를 도모하여 금전을 위하여야는 어서한 회생이라도 잊기지 않는 상태를 이루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어 가르대 「기름과 포도즙은 다치지말라」하였다. 이것은 온 곳 성신의 크신선물 미들과 사랑을 표시함인바 당시 교회가 세속적풍습에 심한해독을 바닷기때문에 이러한것들을 일허바릴 넘려가 만났던것이다. 과연 력사가는 다가든 필치로 당시의 교회의 변형은 도리어 교회의 타락을 이르키고 드디어 반기독교적 불법을 감히 행하게까지 만드렸다고 기록하였다.

우리가 六절말씀에 대하여 한가지 주의할것은 「한량에 밀린되를 잊고 한량에 보리식 되를 어드리니 기름과 포도즙은 다치지말라」한 그 말씀이 췌우의 어떤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네 령들에게서 난 그것이다. 이것은 췌우에 있는 거짓목자들이 그 양세를 바리고 도라보지 아니할때에도 오이러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보실것을 표시한것이다. 소리는 하늘로부터 왔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세속적정신이 그리스도교를 전멸하지안도록, 「기름과 포도즙」곳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

각이 세상에서 아조 업서지안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넘려하시는것이다.

넷 재 인 (법왕권시대—기원五三八—一五一七년)

「넷재인을 제실때에 내가 드르니 넷재령들이 소리하여 가르대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새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썩르느니라 또 썩 四분의一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희게 주어 길과 흉년과 사망과 썩에 있는 증상으로췌 죽이게 하더라」

어린양이 넷재인을 제실때에 넷재 령들이 말하기를 「오라」하였다. 이에 『요한』이 본즉 밧삭마른 청황새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는 사망이오 음부(무덤)가 그 뒤를 썩라다. 권세를 저희게 주어 「길과 흉년과 사망과 썩에 있는 증상으로췌 죽이게 하였다.」이 넷재인시대는 곳 넷재교회시대와 동일한 시대인데 그 탄자 사망의 흉악한 행동은 암흑시대의 법왕권의 필박을 가리침이다. 법왕권의 최성시대에 종교적박해로 말미암아 여러만명의 그리스도인이 참살을 당하였는바 이 암흑시대에 관하여 이러한 기사가 있다.

母 「신교도가 아닌 사람으로도 력사적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면 의심하리만큼 『로마』 교회는 인후이 잇은 아모 다른제도의 법령보다도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었다.」

「만흔사람의 광한 회생을 일일히 다 생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일이다. 또한 저들의 바든 고난을 하나도 빼지안코 다 생각할수 없다는말은 과연 옳은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흰옷을 입은가운데서 사도들의 지도아래 온전하게 진보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빛과 모양이 아조 변하여서 그전과 가튼 상태는 차차 보랴하여도 차차 볼수업는 형편이다. 이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남진바 정결을 아조 멀하기를 깃바하는 사랑과 응부의 사자의 지도아래 있었다. ……신도들은 무식으로 인하여 맹목적복종을 하였고 교회의 승려(僧侶)들은 인민을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불법의귀미」는 네재인을 제실때에 이르러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양심에 법왕권의 박해가 크게 되었다.」

장 그리고 「서」四本の一을 저회계 준다」는 말이 잇는바 이는 당시 법왕권의 세력범위를 가리칭인듯하고 「김파 흥년(의근)과 사랑과 서에 잇는 증생으로써 죽이게 한다」는 것은 법왕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방법을 가리칭이니 혹 묵버혀 죽이고 혹 굶겨죽이고 혹 학살도하고 혹 맹수에게 던져죽였는데 이러한 참혹한 죽음을 당한자의 수는 가장 적게 쳐더라도 五천만명은 되리라고 하는것이 력사가들의 계산이다.

다섯재인 (순도자에관한관찰—기원一五一七—一七五五년)

「다섯재인을 제실때에 내가 보니 제단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저회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바는 령혼들이 잇어 큰 소리로 불려가르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서에 사는 사람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아니하시기를 어느때까지 이르시려 하나이하 하니 각각 저회계 회두루막이를 주며 하는말씀이 아직 잠시동안 쉬어 저회 동모와 형제들도 저회처럼 죽임을 바다 그 수가 차기를 기다

리라 하시더라」

여린양이 다섯재인을 제실때에 『요한』의 본것은 전마(戰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든 『사단』의 권세는 이제 조지(阻止)를 당하였다. 그 악한 녀인 『이세벨』(법왕권)이 지금은 지배권을 잃었다. 이는 하나님의 지도아래 잇는 용감한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의 사업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었다.

다섯재인을 제실때에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는 제단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저회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바는 령혼들이 잇는것을 보았다. 그 제단은 하늘제단이 아니라 이세상이며 그 령혼들은 법왕권의 압박아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신에 자원하여 저의 생명을 희생한자들이다.

그런데 이 구절말씀은 령혼불멸설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세칠 넘려가 만흐므로 거기대하여 간략히 몇마디 설명을 가하려하는것이다. 성경상 지식만라는 사람들이 가끔대서도 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령혼은 육체를 썩나서 흑천당에도 가고 흑지나님이 사람을 썩의 흠으로 비즈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었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二〇七)하였다. 그런즉 사람이 본래는 한덩이 흠에 불과하지마는 하나님인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때에 생령 곧 산령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기운이 선히질때에는 사람은 다시 근본으로 도라갈것뿐이니 이러므로 『요』은 말하기를 「오직 사람은 죽으면 멀하나니 사람의 기운이 선히지면 어디잇나뇨」(요十四〇十)한것이

다. 그러면 여기에 말한바 령혼이 큰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킴인가? 그것은 곳 문법상 의인법(擬人法)을 쓴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무생물에 대하여도 지각이 있는 사람처럼 기록하는새가 있는것이다. 예를 들면「네 아오의 피가 소리하야 내게 호소하는지라」(창四〇十)「돌은 벽사이에 서 부르지지며 들보는 재목가운데서 응답하리라」(합二〇十一)「너희 바레 추수한 품균을 속이고 주지아니한 사시 소리를 지르고」(약五〇四)가튼것은 다 그러한 문법으로 기록된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령혼이 소리지른다는것을 사실상으로 생각하는데는 성경상 근본뜻에 큰 오해를 일으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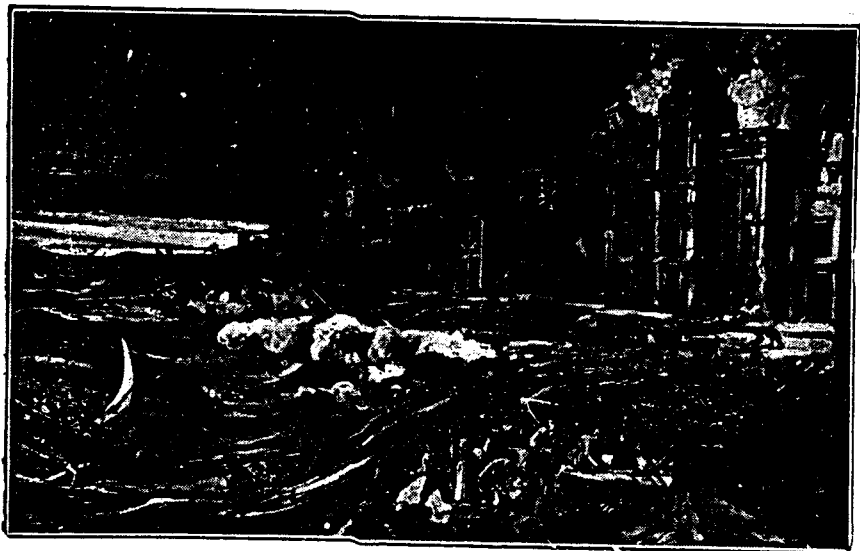
그 순도자들의 령혼은 마치『아벨』의 피가 호소하드시 부르짖기를「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싸에사는 사람을 심판하야 우리 피를 신원하야 주지아니하시기를 어느새까지 이르시려 하나이싸」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은 이러하였다. 「아직 잠시동안 쉬어 저희 동모와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바다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을지라도 아직도 핍박은 그치지 아니하였다. 『로마』의 세력은 오이러 그리스도인을 여러 수만명을 죽이었다. 그러나 그 핍박은「잠시동안」에 다 지나가고 말았다. 이제 저들은 칭찬의 흰두루막이를 입게 되었나니 대개 저희가 비록 천대와 멸시를 바다 죽기까지하였스되 만흔 신교도들은 저희를 순도자라하야 우릴어보고 존경하는 새문이다. 저희는 오래지아니하야 하나님외의 말을을 위하야 고난을 바든 다른동무들과 함께 최후의 보수를 바를것이다.

여섯째 인 (말세에관한관찰——一七五五년—숫날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세실때에 큰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가리 김어지고 온달이 피가리 되며 하늘별이 싸에 썩러지는것이 무화파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썩러지는것과 가르며 조희축이 말리는것가리 하늘이 움겨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움기매 쓰 싸의 님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잡은자들과 모든 종과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회름에 숨어 산과 바회를 불려 가르대 우리우에 썩러져가 리워 보좌에 안지신의의 낮과 어린양의 진노하신것을 피하게 하라 저희의 진노하신 큰날이 이미 이르며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째 인시대는 여섯째와닐곱째 교회시대와 동일한시대이다. 어린양이 인을 세실때에『오한』은「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가리 김어지고 온달이 피가리 되며 하늘별이 싸에 썩러지는것이 무화파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썩러지는것과 가튼것」을 보았다.

「오한』의 본바 큰지진은 과원一七五五년十一月一日에 잇은『리스본』대지진을 표시할인듯하니 이것이 여섯째 인시대에 잇을 사건의 맨첫째 사건이다. 이 지진은 포도아나라의 수부『리스본』을 비롯하야 각처에 잇었는데『리스본』성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멸되고 그 주민 약九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 지진은 구라파와『아프리카』와『아메리카』대륙의 대부분에도 미쳤다. 이 지진광경에 대하여 어떤 저술가는 기록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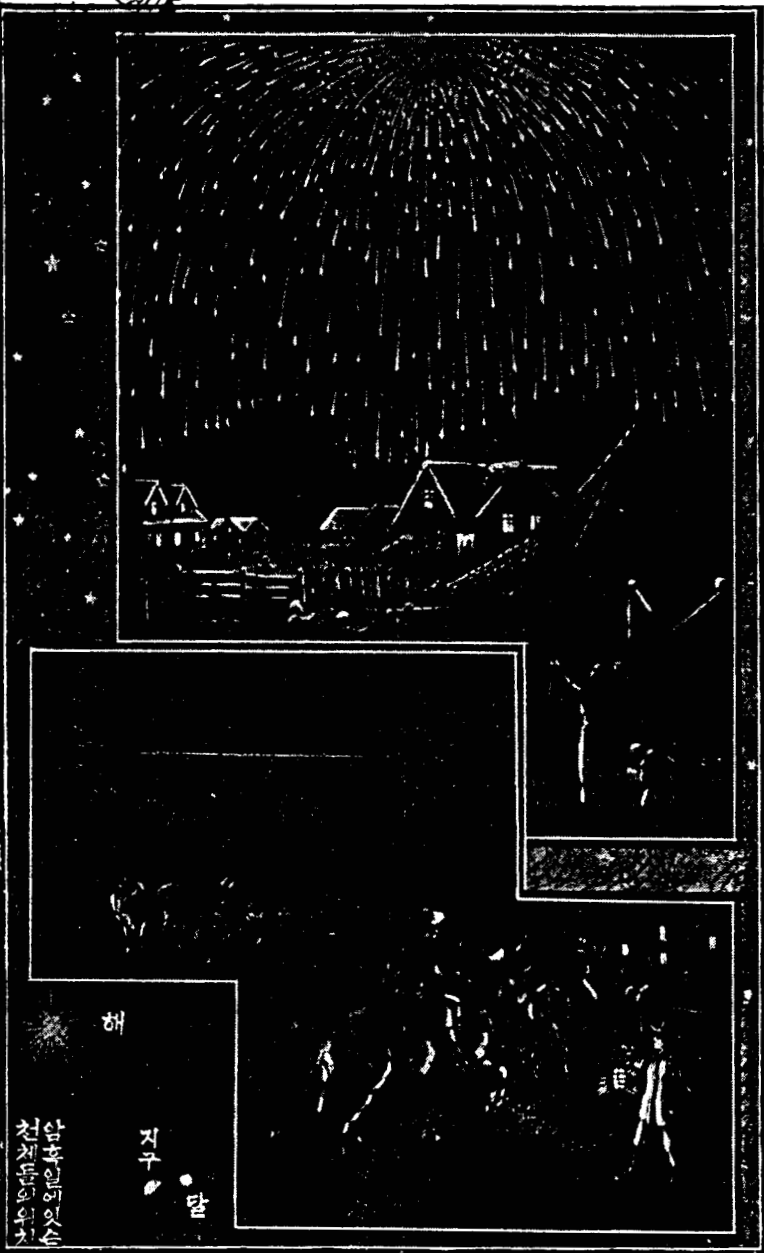


경 광 의 진 지 큰 은 잇 에 『본 소리』 을 서 아 도 포

「사람들이 말로 형언할수없서 심한 공포를 누
기었다. 그들은 너무나 키가 막혀서 우는 사
람조차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어찌나 놀
랍고 두렵든지 정신착란을 이르켰스며 가슴
을 치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상소리
이르렀다 세상소리 이르렀다」 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하였다. 또 다른 저술가는 기록
하기를 「큰무리가 썰러지는 파편(破片)을 피
하라고 안전한곳을 차자 부두(埠頭)로 모
혔었다. 그러나 그 부두는 불안간 함몰되어
그 우에 첫는 사람들이 전부 물에 빠져죽
었는데 신체는 하나도 찾지못하였다. 『모로
코』(『아프리카』 북부의도시)에서 二十四『마
일』상거되는 곳에는 인구八천으로 내지 一
만명쯤 되는 부락이 잇었는데 거기서는 씨
이 갈라짐으로 온 주민과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속으로 드러가고 잠시후에는 씨이 다시
봉합(封合)이 되었다.」 고 하였다.

다른 지방에도 지진이 만히 잇었지만 이 『리스본』 지진처럼 참혹하고 또는 넓은구
역에 진동이 미친 지진은 일족이 없었다. 오늘날의 지진학은 지진을 한갓 예사로운
자연현상으로만 인정하지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경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큰
재앙을 사용하시는바 곳 사람들로 하여금 이세상 만물은 영구하고 안전한것이 아니
고 결국 업서질것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멸망이 업는 래세를 생각케하기 위하심이다.

여섯재인시대에 잇을 들재로 큰일은 해가 어두어지고 달이 피빛가리 되는것이니 이
일은 기원一七八〇년五月十九일에 잇었다. 그날 오전아홉시쯤부터 날이 어두어지기 시작
하여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조 캄캄하여 지척을 본간할수 업서 각집에는 등불을 켜오
며 모든 관공청은 사무를 폐하였다. 또한 그날밤은 만월(滿月)이엇건마는 자정이 지
나도록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히 캄캄하였다. 그러나 얼마후에는 달이 나타나는데 썩
피빛파가리 붉엇섰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중에는 여덟사람이나 이 이상한 재변에 대
하여 기록하였는데 네 사람은 구약의 기술자요 네 사람은 신약의 기술자이다. 『아모
스』는 말하기를 「태양을 나제 썰러지게하여 백주에 씨이 캄캄케한다」(암八〇九) 하였
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해가 나도 어두우며 달이 비출 내지아니라라」(사十三〇十)
하였고 『요엘』은 말하기를 「해가 어두어지고 달이 피빛가리 변할이 여호와와 의 크고 두
려운날이 이르기전에 잇으리라」(을二〇卅一) 하였고 『에스겔』은 말하기를 「구름으로 해
를 가리우며 달이 또한 비출 발하지못하게 할것이오」(겔卅二〇七) 하였다. 력사상의 기
록으로 보면 다른 암혹일에 관한야도 말한바가 잇지만 이 一七八〇년五月十九일에 잇



해가 어둡고 달이 비출 때 지안코 별이 하늘로 서서 떨어짐

삼혹일이잇는
천제들의의치
해 지구 달

은 사실은 성경상 기록과 가장 부합되는바이다. 예수께서도 이 정조가 잇을시기에 대
 하야 말씀하시기를「그날 환난후에 즉시 해가 어둡고 달이 비출내지안으리라」(마廿四
 ○廿九) 하였는바 여기 말한 환난은 법왕권의 압박을 의미한것이니 곧 一천二百六十년
 간의 환난을 의미한것이다. 그런데 이 환난은 정축대로 말하면 一七九八년에 쏫나는것
 이나 실상에 잇어서는 그 귀한이 얼마쯤 일즉이 쏫났나니 종교개혁운동이 이러나는동
 시에 서서와 독일과 불란서와 영국가튼나라들이 신교도를 보호하고 원조하야 법왕권의
 해를 피하게 하였으며 또한 一七七六년에는 미국이 독립을하야 신교도들이 법왕권의 압박
 받을 피하야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신교의 자유를 잇게되었다. 예수께서는 이일을 가
 리쳐 그 남들을 감하였다고 하신것이다. 그런즉 一七八〇년의 암혹일은 바로 환난후에
 잇는 사실이다. 그 암혹이 얼마나 넓은 지역(地域)에 미쳤는지는 확실히 모르나 당
 시 신영주(新英州) 전록파(전북파) (미국동편지방) 또는 그 이상 더 넓은지역에 미쳤는것이라고
 일방이 인정하는바이다. 이 암혹으로 말하면 일식으로 말미암아 생긴것도 아니니 일식
 이 만월되는날에 잇을리가 만무한것이다. 천문학자들도 그 암혹의 원인은 도모지 아지
 못하는바이다. 그때에 다수한 사람은 김흔 인상을 바닷나니 선한사람들은 심판날이 곧
 이를줄로 알았고 악한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야 만물의 마지막이 곧 다칠줄로 알았다.
 이는 의심업시 하나님의 신이 저희 마음가운데 운동하사 저희로 하여금 이 정조의뜻
 을 연구하야 보라고 경고하신것이다.

또한 별이떨리지는 일은 一八三三년十一月十三일에 잇었는데 이는 실로 천문력사상 일

인 관 년



안동시반
—산시지칠
반말니

유리
—림재수에



조진지르
—년五五七
일—월—十

이말와해
—년〇八七—
일九十月五

이별
—三三—
일三十月—

일논치인
—년〇九一—
일三十月—



상표
—는잇레아단제
——혼령—
야하위물거중
자한교순

두기마
—이돌지교순
용임용원남

동운혁개



상표
—말색황청
—대시후양

자란사
—합

년홍김
—망사년홍김
이죽로으생중
—합계—
도스리그한수다
의원왕법이인
음죽로으합법



상표
—말은김
—합도베

술저
—합사의학피

부정과교중
—합련의

을의리상세
—합람

립권왕법



상표
—말은북
—합페부

칼
—합금

을평화에셔
—승아새

『마포』표이
—박필의



상표
—말
—합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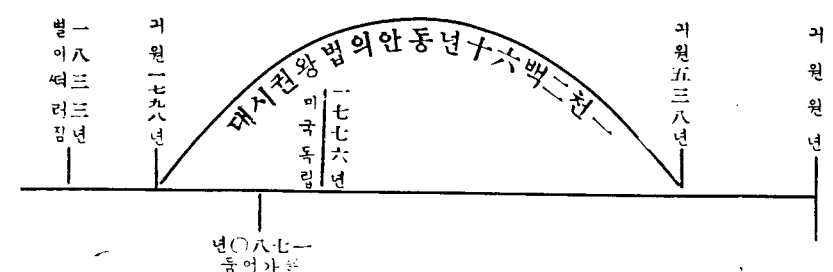
활
—합복정

판류면
—합리

즉 보지못한 괴이한 일이다. 그 광경은 마치 여름에 소낙이가 폭 주하는 것과 가라앉나니 이 별소낙이가 약 세시간을 온 북미주의 밤 하늘에서 계속하여 나리었다. 이 광경에 대하여 『오한』은 괴로하기를 「하늘별이 썩에 썩러지는 것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썩러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여 밝는 날은 심판이 열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일 후에 잇을 일은 「조희축이 말리는 것 가리 하늘이 옮겨가고 모 든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기」는 것인데 이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나 오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이룰 일이다. 이는 곧 주께서 재 립하실 때에 잇을 형편이니 본장十六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다. 그런데 이가튼 사실에 대하여 마태二十四장二十九절에는 「하늘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였고 이사야二十四장十九절에는 「씨이 다 묻혀지고 갈라지고 심히 흔들려서 비를 거리게 될 취한자가 리하고 요동하기를 그네가 리하리라」 하였으며 예레미야四장二十四절에는 「내가 산을 보매 다 진동하고 또 모든 외벽리가 움직인다」고 하였다.

우리는 본장十三절을 十四절 이하의 말씀과 대조할 때에 우리의 시대에 대하여 중대한 깨달음이 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섯째인시



대에 잇을 해와 달과 별의정조는 이제 다 지나가고 말었다。 이 압해 이를 일은 오
 직 하늘이 응겨가고 모든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응기는 일이다。 이일이 이를때에 「씨
 님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잡은 자들과 모든 종과 자주자들이 굴과 산과
 회름에 숨어 산과 바회를 불러가르대 우리우에 썩러져 가리워 보좌에 안지신이의 낮
 과 어린양의 진노하신것을 피하게 하라」 하고 부르지줄것이다。 저들이 엇대것 교만하고
 六 회망하고 부절제한 생활로 지내왔지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출 대하고 어
 七 린양의신 예수의 진노를 당하며 감히 그얼굴을 들지못하고 굴과 산바회름에 숨어 산
 과 바회를 불러 자기를 더피우기를 부르짖는것이다。 과연 어린양의 진노하시느 큰날이
 이를때에는 약한자는 아모도 능히 설수업는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남은시간이 만치안온
 이 때에 잇어서 그 큰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썩어 잇을것이 아닌가?